



민생·경제·안전
두루
살피겠습니다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11대 전반기를 보내셨는데
요,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안녕하십니까? 강릉시민 여러분! 위원장일 때이든 아니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지역주민들과 강릉시민 여러분들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자세로 배우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예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위원장, 평의원 이런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 역시 농업인으로서 언제나

주민들과 호홉하고 생업을 유지하는 생활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관광 거점도시, 법정 문화도시 등 국가 공모 사업 유치로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정작 농·산·어촌의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강릉시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빠르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구가 과거 도농통합지역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느끼는 현안도 다른 지역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부권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남부권은 강릉시 어느 곳보다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통택지 등 시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활환경 쏠림현상 탓에 기존상권은 몰락할 위기입니다. 택지개발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하나의 강릉시로 움직여야 할 최소한의 정책적인 배려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제 나름의 분석은, 농·산·어촌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없었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그동안 보여주기식의 정책을 위해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겠지’, ‘등명지구가 개발되겠지’, ‘포스코 공장이 다시 돌아가겠지’ 하는 일종의 희망 고문을 매년 겪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 공감하는 정책, 소득이 되는 사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한 때입니다.

지역의 저변에서부터 출발하신 경력이 눈에 띄니다. 의정 방향이나 역점을 두는 분야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 ‘민생과 경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고, 2019년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렇듯 의회는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 대부분은 거창하고 무리한 요구,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요구,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더 소통하고, 주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전달하여 조금이라도 더 시민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2018년 9월,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수원 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오히려 깨끗한 상수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의회는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집행부가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또 총 8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선 아직도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식수의 보장은 주민의 기본권리인 만큼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낸 강릉시민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지금껏 우리는 몇 번의 위기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덕분에 ‘청정 강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뚝뚝 뭉쳐 위기를 이겨냅니다.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고 뽕뽕 일었던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다가올 봄이 머지않았습니다! ㉠



지방자치의 꽃
활짝
피우겠습니다

김복자
강릉시의회 의원

11대 강릉시의회 후반기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2014년 처음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와 현재 재선의원으로 활동할 때의 느낌은 무척 다릅니다. 책임감은 더 막중해졌고, 회기 중엔 오히려 긴장감이 더 늘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의회는 정치 공론의 장입니다. 지방의회가 정치 공론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최종 합의되는 의사 결정에서 정책적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기에 강릉의 젠더 지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 인권운동 단체에서 10여 년간 활동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성 평등'이라는 용어는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은 2005년 처음으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섰고,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고용률은 남성과 비교해 20%가량 떨어집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고, 신사업장과 허난설한 같은 주제적이고 깨어있는 역사 인물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존중은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에 여성들의 역량을 담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킬 때 누구나 살기 좋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강릉시의 현안에 관해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요,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강릉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외부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릉시의 당초 예산만 1조 2천억 원가량입니다. 대기업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강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비대면 4차산업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을 극대화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찰력을 가진 따뜻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힘으로 강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비대면 4차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 고유성을 극대화한 자체 브랜드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어...

시민들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질 때 강릉시는 발전할 것입니다.

의정활동 중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2014년 7월 초선으로 시작했는데, 첫 시정 질문을 할 때가 기억납니다. 경포 석호 생태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회기를 이용하여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야 해서 짧은 시간에 구체적이고 많은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너무 세세한 질문은 시장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놓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상호 존중하면서 직급에 적합한 시정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시민 모두 힘듭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지쳐있는 소상공인, 의료진, 자원봉사자, 필수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국가와 강릉시, 강릉시의회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2021. 3. 22 ~ 3. 26 / 5일간)



강릉시의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20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복자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휴직률 증가에 따른 방안 모색과 장애인 활동 지원 개선’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코로나 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4건에 대한 안전심사를 진행했으며, 23일 산업위원회는 KIST 강릉분원을, 24일 행정위원회는 강릉문화재단을 각각 방문했다.

강희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강릉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도시에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둔 성과를 축하하며, 영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이 다가오는 만큼 최근 여러 해 반복되는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릉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복지, 의료, 청소, 물류, 교통서비스 분야 등에서 국민의 일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강릉시 주민자치 발전포럼

강릉시의회는 지난 2월 16일 라카이샌드파인에서 ‘강릉시 주민자치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강릉시의회와 강릉원주대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 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를 초청, 주민자치 발전 방향에 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객현근 대전대학교 교수가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향과 우수사례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신승춘 강릉원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광민, 김진용 강릉시의회 의원, 김상원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은숙 대전 송촌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릉 해양레저 활성화 세미나

강릉시의회는 지난 2월 19일 라카이샌드파인에서 열린 ‘강릉 해양레저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했다. 강릉시의회와 강릉원주대학교, 강릉관광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 해양레저 분야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었다. 임성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사무관과 김태동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충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과 교수가 강원도 해양레저와 관련한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이범 강릉원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릉시의회 조대영 의원, 함석종 강릉원주대 교수 등이 해양레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강희문 의장은 “산·강·바다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릉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변모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102주년 3.1절 기념행사(3.1)



강희문 의장, 119 릴레이 챌린지 참여(3.8)



신일정밀 노조 간담회(3.15)



신재걸 부의장, 플라워 챌린지 참여(3.16)

강릉시의회, 폭설 피해 농업현장 방문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을 비롯한 김기영 의원, 김용남 의원은 지난 3월 5일 폭설 피해를 본 왕산면 농가를 방문, 농민들을 위로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강릉시청 농정과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설명 들은 뒤 농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강희문 의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가 빠지는 일 없이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고 피해 농업인에게는 “강릉시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왕산면에는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눈이 60cm 나 내려 강릉에서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씨감자, 고랭지채소가 어는 등 왕산면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90회 임시회 일정협의



강릉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9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과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를 건을 처리하는 등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허병관 의회운영위원장은 “3월이 시작되자마자 내린 폭설로 교통 불편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가뭄 해갈과 산불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라며 “하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세는 여전히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 다 같이 마지막 고비를 이겨내자”라고 강조했다.

강릉시의회 안내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꽃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강릉시의회’를 검색하면 강릉시의회 홈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 소개는 물론 각종 법규와 활동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강릉 플러스>에는 축약돼 실리는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 회의록 발언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릉시의회 유튜브도 개설했습니다. 문의 640-4063